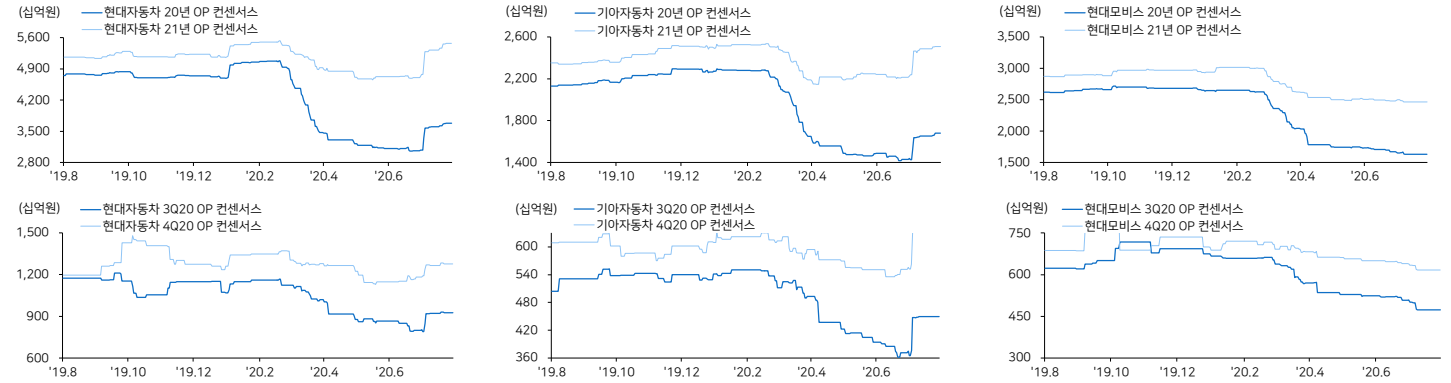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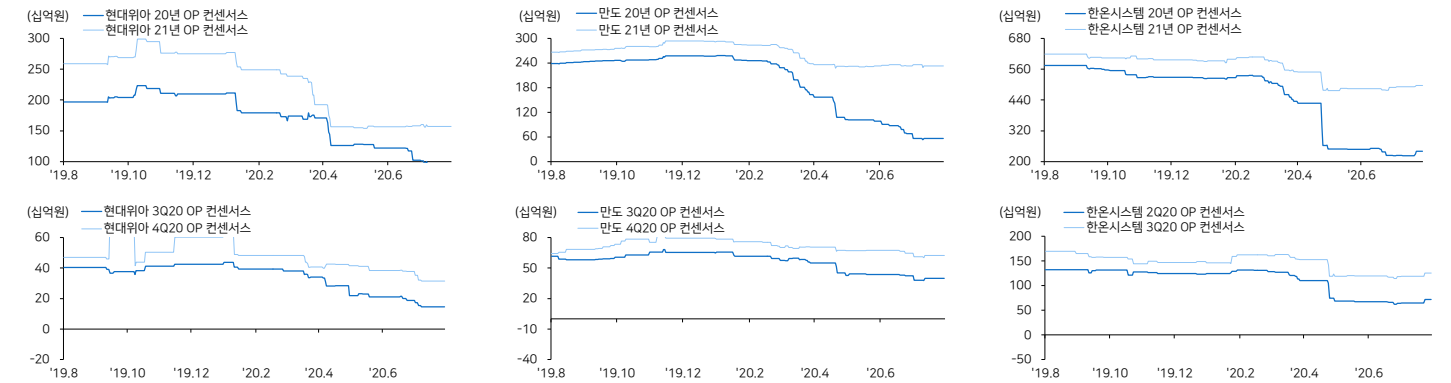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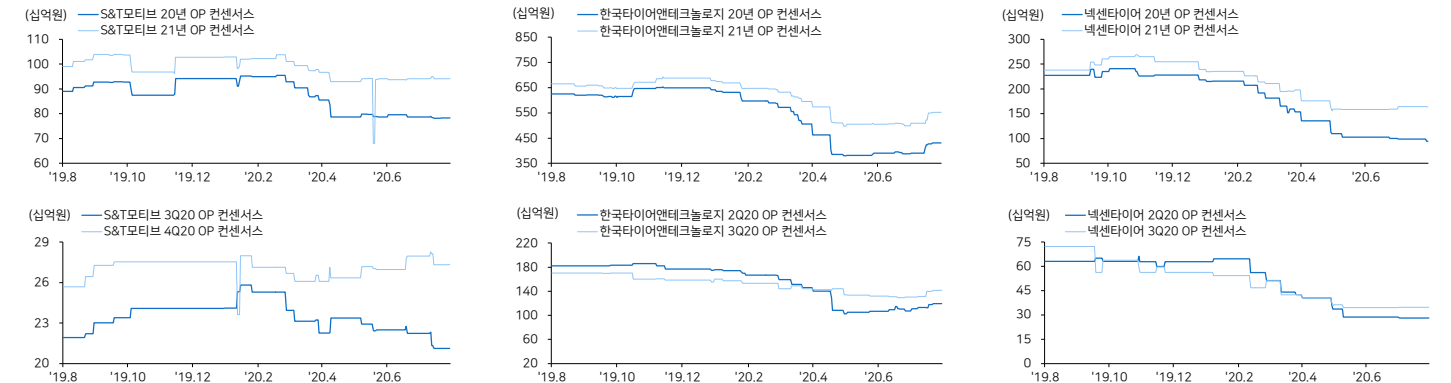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커지는 전기차 시장... '선호 브랜드' 1위 테슬라, 2위 현대차 (뉴스원)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장 사고 싶은 전기차 브랜드로 테슬라를 꼽았음. 내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전지차를 출시하는 현대자동차는 2위에 오른. 아이오닉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https://bit.ly/34xG28Q>

기아차, 국내 첫 택시 등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보증연장 상종 출시 (전자신문)

기아자동차가 현대캐피탈과 손잡고 영업용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보증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종의 배터리 리스 사업 전단계 서비스 모델.
<https://bit.ly/31qspGw>

7월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2개월만에 '소폭 증가' (중소기업뉴스)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판매된 중국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7월 이후 12개월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https://bit.ly/31tCwd0>

미국의 첫 자율주행 전용도로, 카보뉴(Car+Venue) 생김다 (KOTRA)

자동차의 도시 미트로이트부터 미시간대학교가 있는 앤아버까지 미국 최초의 자율주행도로가 건설됨. GM, FORD, BMW,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자본 역할을 맡은 대규모 프로젝트.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4193>

현대차의 모빌리티 투자 성과와 파이프라인들② (비블로터)

글로벌 미래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 갖고 있는 현대차의 투자 방식을 보면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됨. 2가지인데요. TransLink Capital과 Hyundai CRADLE. 2곳 법인이 현대차 모빌리티 투자의 양대축.
<https://bit.ly/2QnN3Rp>

현대모비스, 폭스바겐·테슬라와 손잡고 (초이스경제)

로이더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이 현대차에 부품 공급하던 회사들을 포함해 부품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 현대모비스가 그들 이외의 판매처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https://bit.ly/2EjJ8Tz>

매출 1조원 '빠진' 타이어 빅3...이대로 가면 '평균' (전자신문)

타이어 업계는 공금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수요를 확대할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 향후 공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해외 공장을 무리하게 확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https://bit.ly/2YyNLzr>

중국→인도→또 중국?...쌍용차, '상하이 악몽' 대차부 (한국경제)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다시 중국계 기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현실화될 경우 쌍용차의 새 주인이 다시 중국계 투자자로 회귀할 것으로 보임. 투자자 선정에 따른 대안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함.
<https://bit.ly/34xFQG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